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김미선*

- 목 차 -

- I. 머리말
- II.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
- III.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방안
 1. 호남문집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2.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 IV.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의 의의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화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된 현 상황에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을 살폈다. 이를 통해 문집 3,000종, 지방지 2,000종, 누정현판/금석문 5,000점 등 풍부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영재교육 방안의 예로, 호남문집과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교육을 살폈다. 호남문집을 활용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한 문화영재 교육에서는 문집에 수록된 작품 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해외를 체험하고 이를 기록한 실기인 최부의 『표해록』과 강항의 『간양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편의 실기를 통해 역사 속 사람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르치고, 최부와 강항이 경험했던 곳을 여행하여 문학적 체험과 실제 체험을 함께 겪으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글로 쓰게 하는 교육 방안을 예로 들었다.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에서는 면양정과 식영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누정에서 교유를 하였고, <면양정 30영>, <식영정 20영>과 같이 그곳에서 보게 되는 풍경에 대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읊었다. 학생들이 이러한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배우고, <식영정 20영>의 작자들처럼 직접 누정에서 누정연작제영 같은 시를 쓰게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의 의의를 살폈다. 이를 통해 호남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친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점,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여 교육하며 역사적 지식도 함양시킬 수 있는 점,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점, 애니메이션 제작 등 문화콘텐츠화 교육이 가능한 점 등 네 가지 의의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호남기록문화유산, 문화영재, 호남문집, 호남누정현판, 『표해록』, 『간양록』, 면양정, 식영정

I. 머리말

현대에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가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문화영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송인섭·문은식·하주현·김누리·성은현이 함께 영재를 위한 인문사회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인문사회적 소양은 모든 영재교육의 기본이고 모든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았고,¹⁾ 태진미는 ‘문화와 예술, 전통과 역사, 자연과 인류, 사회와 과학이 어우러지는 무궁한 소재,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적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하면서 영재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²⁾ 최근 송병삼·염승한, 이옥희, 전동진·김민지 등의 연구³⁾도 문화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기저로 하여, 문화영재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영재 교육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되었고, 이제 그에 대한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재 교육방안의 하나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호남 지역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이 존재한다. 호남의 한문문집은

1) 송인섭 외, 「영재를 위한 인문사회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영재와 영재교육』 8, 한국영재교육학회, 2009, 49쪽.

2) 태진미, 「영재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41쪽.

3) 송병삼·염승한, 「문화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실제」,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이옥희, 「남도 문화예술의 미적 특성과 문화 가치」,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전동진·김민지, 「문화영재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3,000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식영정, 면양정, 소쇄원 등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무수한 누정과 거기에 걸린 현판이 있다. 1,000종이 넘는 선장본 지방지와 전통이 살아 있는 고서화 등도 호남의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영재를 교육한다면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을 간략히 살피고, 3장에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방안으로, 호남문집과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호남에는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이 있지만, 그 기록문화유산을 다 살피기에는 지면과 필자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호남의 특색이 담겨 있으면서도 남아 있는 양이 풍부한 문집과 누정현판, 두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의 의의를 정리할 것이다.

II.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2010년부터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함께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연구 성과는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http://www.memoryhon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연구는 이 사업이 유일한 것이므로,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호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 메인화면

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상단에, DB화된 호남기록문화유산 항목들이 보인다. 문집, 지방지, 문중문헌, 고서화, 목판/금석문, 고문서, 일기자료 7개 분야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식으로 정리한 호남인물검색시스템까지 포함하여 총 8개 분야가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집대성·콘텐츠화되고 있다. 연구 소개와 각 분야별 소개 부분에서 호남기록문화유산 분야별 현황과 의의를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호남기록문화유산의 전체적인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야	전체 규모 (추정치)	전체 기초 DB화 목표	분야	전체 규모 (추정치)	전체 기초 DB화 목표
문집	약 3천 종	3천여 종	누정현판/ 금석문	약 5천 점	3천여 점
지방지	약 2천 종	2천여 종	고문서	약 10만 점	5천여 점

분야	전체 규모 (추정치)	전체 기초 DB화 목표	분야	전체 규모 (추정치)	전체 기초 DB화 목표
문중문헌	약 1천 종	1천여 종	일기	약 200종	200여 종
고서화	약 5만여 점	5천여 점	호남인물 검색시스템	약 수만 명'	1만여 명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전체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고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2002년 설립된 이래 문집, 지방지, 문중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호남기록문화유산을 집대성 하면서 전체 규모를 추정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실제 문집의 경우 올해 출판한 『호남문집 기초목록』(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편,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에 현존하는 2,600종이 넘는 문집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 약 3,000종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멸실된 자료가 많고, 한국국학진흥원이 1995년에 설립된 이래 유교목판 50,000점, 국학자료 30,000점을 수집하는 등 영남의 기록문화유산들을 정리한 것⁴⁾에 비하면 호남기록문화유산 정리는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료들은 멸실, 훼손의 위험이 있어 최대한 빨리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호남 지역은 한국국학진흥원보다 늦게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원과 인력도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 3,000종, 지방지 2,000종, 문중문헌 1,000종, 고서화 50,000점, 누정현판/금석문 5,000점, 고문서 10,000점, 일기 200점의 규모를 예상하고,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은 그만큼 호남기록문화유산이 풍부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4)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

위의 8개 분야는 원자료를 집대성하여 DB화하는 자료적 성격의 연구라 대중에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쉽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자 번역자료실, 디지털스토리텔링, 문화유산이야기 등도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스토리텔링에는 김인후, 하백원, 기대승 등 호남의 인물과 <유서석록>과 같은 작품에 대한 각각 6분 가량의 애니메이션이 수록되어 있어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에게도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을 쉽게 알려 주고 있다.

호남의 특색과 문화가 담겨 있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은 문화영재 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양적으로도 풍부하여 여러 유산 중 문화영재 교육목표에 맞는 원자료를 찾아 활용한다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방안

1. 호남문집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문집은 작자가 남긴 작품을 모은 것으로 문집 안에는 한시를 비롯하여, 시조, 서간문, 격문, 실기 등 다양한 글이 망라되어 있고, 행장, 묘갈명 같은 작자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기록도 실려 있다.⁵⁾ 한시, 시조를 통해 서정적인 문학 작품을, 서간문을 통해 교유 관계를, 실기를 통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의 세부적인 삶을, 행장, 묘갈명을 통해 탄생부터 사망까지 한 개인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5)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20쪽.

작품이 문집에 실린 것은 호남문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문집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호남문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은 역사적 상황과 개인이 겪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두 편의 작품은 『금남집(錦南集)』에 수록된 최부의 『표해록』과 『수은집(睡隱集)』에 수록된 강항의 『간양록』이다.⁶⁾ 『금남집』과 『수은집』은 각각 최부와 강항의 문집으로, 두 사람은 모두 조선시대 호남의 문신이다.

최부(崔溥, 1454~1504)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가 금남(錦南)이다. 1486년 증시에 2등으로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된다. 이후 사헌부 감찰을 거쳐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을 지내다가 1487년 부교리가 된다. 그 해 9월 17일 제주의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이 되라는 명을 받고 11월에 제주도에 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해인 1488년 1월 3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

수정사(水精寺)의 지자(智慈) 스님의 배가 견고하다 하여 이 배를 준비하고, 최부를 포함한 일행 43명과 윤 1월 3일에 출항한다. 날씨 때문에 논란을 벌인 후 출항을 하였다가 일행은 그날 밤부터 표류하게 된다. 윤 1월 12일에는 중국 영파부 근처의 큰 섬에 도착하였으나 도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고, 다시 표류하다가 1월 16일에 중국 태주부 임해현의 우두외양(牛頭外洋)에 도착한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다고 하여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중국에 도착한 후 그들은 왜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도저소(桃渚所)로 가 심문을 받고 윤 1월 22일, 조선인임이

6) 『표해록』과 『간양록』에 대한 설명은 기존 필자의 논고를 재정리한 것으로, 설명 마지막에 각주로 인용한 문헌을 표시하였다.

확인되어 윤 1월 23일에 도저소를 출발하여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북경으로 향한다. 3월 28일 북경에 도착한다. 북경에서 24일간 머무르며 황제를 알현하는데, 이때 최부는 상인(喪人)으로 상복(喪服)을 입고 있던 터라, 황제를 알현할 때 관복(官服)을 입는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다.

4월 24일, 마침내 송환길에 올라 6월 4일에 압록강을 건너고, 6월 14일에 한양에 도착한다. 이렇게 한양에 당도한 직후 성종의 명에 의해 표류의 전말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 바로 『표해록(漂海錄)』이다.⁷⁾

『표해록』은 ‘발단-표류-중국 노정-후기’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발단은 여행의 원인을 제시하고, 후기는 중국의 지리·제도·풍속 등에 대해 정리하여, 작품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역할을 한다. 본격적인 일기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노 정		기 간	주요 사건
표류		윤 1월 3일~윤 1월 16일 (14일간)	·바다에서의 표류 ·도적을 만남
중국 노정	도저소 압송과 억류	윤 1월 17일~윤 1월 22일 (6일간)	·왜적의 누명을 쓰고 끌려감 ·심문을 통해 누명을 벗음
	북경 이송	윤 1월 23일~3월 28일 (65일간)	·항주에서 며칠 머무름 ·소주부, 양주부, 회안부, 제녕주, 덕주 등을 지남
	북경 억류	3월 29일~4월 23일 (24일간)	·옥하관에 머무름 ·황제를 알현함
	송환	4월 24일~6월 4일 (40일간)	·사신을 만남 ·산해관, 광형역, 요양역 등을 지나 압록강을 건넌

강항(姜沆, 1567~161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가 수은(睡隱)이다. 1593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공조좌랑, 형조좌랑을 지냈다. 1597년에 휴

7) 김미선, 「崔溥 『漂海錄』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7쪽.

8) 앞의 논문, 17쪽.

가를 얻어 고향 영광에 있던 중 일본의 재침입을 맞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군량 운반을 돕고 여러 고을에 격서를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적의 기세가 더욱 거세어져 영광을 공격하자 강항은 가족, 친척과 함께 두 척의 배로 피란을 떠나게 된다. 뱃사공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배와 떨어지게 된 강항 일행은 아버지의 배를 찾다가 9월 23일에 왜적에게 잡힌다. 왜적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신주를 잃어버리고, 이후 바다 위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며,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 그 후 강항은 일본의 대마도 등을 경유하여 이예주(伊豫州) 대진성(大津城)에 유치되었다. 후에 섭진주(攝津州) 대판성(大坂城)으로, 다시 산성주(山城州) 복견성(伏見城)으로 이송된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1600년 봄에 귀국을 승인받는다. 그리하여 1600년 4월 2일에 귀국길에 올라 5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한다.

『간양록』은 이렇게 강항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강항은 처음에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으로 『건거록(巾車錄)』이라 이름하여, 본인을 죄인이라고 낮췄다. 뒤에 후학들이 강항의 시와 권필의 시에 있는 소무(蘇武)의 고사를 인용한 ‘간양(看羊)’이라는 시어를 이용하여 『간양록(看羊錄)』이라 칭하였고, 이후 이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적중봉소(賊中封疏)」, 「적중문견록(賊中聞見錄)」, 「고부인격(告俘人檄)」,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섭란사적(涉亂事迹)」 등 다섯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선조에게 올린 소(疏)인 「적중봉소」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던 중에 작성한 것으로, 피란부터 잡혀서 일본으로 오기까지의 과정과 일본 생활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선으로 돌아가

죄를 받겠다는 강항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적중문견록」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으로 돌아 온 후 곧바로 조정에 바친 글이다. 「고부인격」과 「예승정원계사」은 비교적 짧은 글이다. 「고부인격」은 포로들에게 당부하는 글로, 고사를 다수 인용하여 일본을 비판하고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강조한다. 또 포로로서 자신의 심정을 서술하며 포로들에게 힘을 모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승정원계사」은 부산에 도착하여 명으로 한양으로 바로 올라간 후, 일본의 사정을 문기에 작성한 글이다.

『간양록』에 일본을 탐색하고 계책을 제시하는 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문학성이 짙은 「섭란사적」은 체험을 일기체로 기술한 것이다. 피란 전의 상황부터 일본에서 억류가 끝나고 조선으로 오는 중의 마지막 경유지인 일기도(壹岐島)를 출발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체험과 작자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다. 또 당시에 썼던 시 31수가 삽입되어 있어 강항의 정서가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강항은 전쟁을 겪고, 살기 위해 피란을 떠났다가 일본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이별하고, 자식과 조카의 죽음을 보는 등 개인적이면서 비극적인 경험이 「섭란사적」에 나타나 있다.⁹⁾

『표해록』과 『간양록』 두 작품은 모두 실기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해외를 다녀온 체험을 기술한 것이다. 『표해록』은 일기로 이루어져 있고, 『간양록』은 소(疏), 견문록 등 다섯 편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실제 역사적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 자신의 직접 체험을 생생히 기록한 실기이다. 최부는 표류로 인해, 강항은 임진왜란 중 피랍으로 인해 각각 중국과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는

9)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43~47쪽.

고통과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실기를 통해 보여준다.

이 두 편의 실기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다. 먼저 두 편 모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어린아이 龍과 첩의 소생 딸 愛生을 모래 밭에 버려 두었는데, 조수가 밀려 떠나려가느라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한참만에야 끊어졌다. 나는 나이가 30세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태몽에 새끼 용이 물위에 뜬 것을 보았으므로 드디어 이름을 용이라 지었던 것이다. 누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생각했겠는가? 浮生의 온갖 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¹⁰⁾

임진왜란은 조선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전쟁이고, 한·중·일이 참여한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다. 또한 포로전쟁이라 불릴 만큼 일본은 대대적으로 조선인들을 끌고 갔다. 그런데 역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외우게만 하기 보다는 위의 글을 읽혀준다면 어떨까? 위는 강항이 피랍되는 과정에서 어린 자식들과 헤어지는 과정이 『간양록』에 묘사된 부분이다. 어린 두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느라 들리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왜적에게 묶인채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었던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포로로서 임진왜란

10) 稚子龍及妾女愛生，遺置沙際，潮回浮出，呱呱滿耳，良久而絕。余年三十，始得此兒，方娠夢見兒龍浮水中，遂以爲名。孰謂其死於水中也。浮生萬事莫不前定，而人自不悟矣。 - 姜沆 『看羊錄』, 『涉亂事跡』

직접 체험을 기록한 『간양록』과 같은 작품을 주요 자료로 하여 교육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표해록』에도 표류되는 과정에서 풍랑에 거의 죽을 뻔 하고, 오줌을 받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선조들의 살아있는 체험을 알려줄 수가 있다.

다음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를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가르쳐 줄 수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중·일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동아시아 삼국전쟁인 임진왜란은 일본이 명을 침략한다는 이유 아래 명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명나라는 조선의 지원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세 나라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해 긴밀한 영향관계 속에 있는 세 나라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사신 왕래도 활발하여 조선 사신이 청나라에 사신 다녀온 기록인 연행록, 일본에 사신 다녀온 통신사일기도 많은 작품이 남아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속적인 왕래가 있었는데, 『표해록』, 『간양록』 등의 작품을 통해서도 실제적인 교류 과정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최부의 『표해록』에는 중국인들이 최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러 오고, 함께 문답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 당대 중국인들이 조선인에 대해 가졌던 우호적인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을 통해 실제 역사 속 사람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르치고, 교류관계를 알려 주는 것은 1차적인 교육방안이다. 이는 다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2차적인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최부와 강항이 경험했던 곳을 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문학적 체험과 실제 체험을 함께 겪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글로 쓰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중국 복건성으로 이어지는 최부의 노정, 영광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 본토로 향하는 강항의 노정은 우리 선조들이 다녔던 길이다. 특히 강항의 노정은 많은 조선 포로들이 지나쳤던 길이다. 문학을 통해 선조들의 고통을 알았다면, 그들이 지나쳤던 곳, 자식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곳을 보며 생생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에게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의 감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몇 백년 전의 경험이 글로 남겨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감동을 함께 준다는 것을 학생들이 글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제 자신의 글도 훗날에 남겨질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2014년 현재, 뉴스에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한다. 세월호 침몰로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공포심을 가져오며, 왕따 문제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이 직접 가족의 죽음이나 왕따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 어린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큰 사건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글로 남겨 놓는다면 이 또한 후손에게 남겨지는 생생한 체험담이 될 것이다. 작품을 통해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실기를 쓰도록 지도한다면, 인문학적 소양과 글쓰기 능력까지 함께 배양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2. 호남누정현관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

누정은 양반층 남성 위주의 유람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지어진다. 특히 호남의 수려한 자연 공

간은 누정이 지어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부터 많은 누정이 건립되어 왔다.¹¹⁾ 누정은 그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고, 문학작품은 현판의 형태로 누정에 걸려 또 다른 절경을 낳는다. 누정문학의 형태는 연작형태로 되어 누정의 집경을 몇 가지로 한정된 누정연작제영, 누정을 방문하고 쓴 기록인 누정기, 그리고 누정에 대한 소회를 담은 누정 제영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이중 누정연작제영은 선비들이 하나의 누정에 대해 쓴 것으로 그 누정의 역사와 함께 선비들의 문화를 볼 수 있다. 누정연작제영은 현판으로 현재에도 누정에 걸려있는데, 이를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호남에는 다양한 누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누정은 면양정과 식영정이다.¹³⁾ 면양정과 식영정은 모두 담양에 위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으로, <면양정 30영>과 <식영정 20영>이라는 누정연작제영이 현판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면양정(俛仰亭)은 송순(宋純, 1493~1583)이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에 건축한 누정으로, 1533년경에 처음 건축되었고, 1552년에 증건되었다. 16세기는 호남의 주요 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계산풍류(溪山風流)의 문학적 풍토를 세웠으며, 이 시기에 좌장격으로 활동한 사람이 송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호남은 팔도 가운데 물산이 풍부한 특성을 바탕으로 담양 지역에서 누정이 활발하게 건축되었으며, 면양정, 식영정 등 누정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문학적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면양정 30영>은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고경명(高敬命, 1533~

11) 황민선, 「누정연작제영 <息影亭 20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쪽.

12) 황민선, 「光州 風詠亭 次韻詩 고찰」, 『고시가연구』 28,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205쪽.

13) 면양정과 식영정에 대한 설명은 임준성, 황민선의 논고를 재정리한 것으로, 설명 마지막에 각주로 인용한 문헌을 표시하였다.



<면앙정 30영> 현판¹⁴⁾

1592), 임억령(林億齡, 1496~1568),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면앙정 주변의 풍경 30군데를 정해 각자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이중 김인후는 이미 <소쇄원 48영>이라는 누정제영시로서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인후는 <소쇄원 48영>에서 각 제영마다 네 글자로 압축된 제목으로 각각의 공간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다시 <면앙정 30영>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을 보이며, 이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 등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본다면 <면앙정 30영>은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 송순에게 바치는 헌시(獻詩)가 아니라 개개인이 저마다 송순의 면앙정 풍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노래한 김인후의 <면앙정 30영>에서 제시한 제목을 그대로 이어받아 서로 시간적 순차를 두고 창작한 것이라 하겠다.¹⁵⁾

현재 면앙정에는 <면앙정 30영> 중 임억령과 고경명의 시가 판각되어 걸려 있으며, 송순의 『면앙집』 7권에도 실려 있다. 위의 사진은 고경명의 시를 판각한 현판이다.

식영정(息影亭)은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33세 무렵 임억령을 위해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건축한 누정이다. 식영정은 주변의 소쇄원, 환벽당을 비롯 송강정, 면앙정과 같은 호남 시단의 중추적 역할을

14) 본 논문에 수록한 현판 사진 2종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에 탑재된 사진을 활용한 것이다.

15) 임준성, 『侂仰亭三十詠』과 활용, 『우리말 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2~7쪽.

했던 누정들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 임억령을 중심으로 그 곳의 주인들과 식영정을 오가는 여러 문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임억령, 고경명, 김성원, 정철(鄭澈, 1536~1593)은 성산사선(星山四仙)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교류가 잦았다. 이들은 단순한 시적 교류관계가 아닌 평생 동안 친밀하게 사제지간으로서, 시우로서 교류해 왔다. 또한 임억령은 스승으로서 시로 뛰어난 문제를 날렸던 인물답게 이들의 시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식영정 시단은 시적인 교류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식영정 20영>은 이런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다.

<식영정 20영>은 한명이 20수씩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 송순 이렇게 5명이 지은 총 100수의 연작시이다. 성산사선은 임억령을 중심으로 한 사제 관계였고, 임억령과 송순은 같은 박상(朴祥, 1474~1530)의 문하생이며 연배 또한 세 살 차이로 가장 비슷했다. 이러한 사실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식영정 20영>은 원작인 임억령의 시에 제자로서 고경명, 김성원, 정철은 차운을 하였고 송순은 시우로서 화답을 한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영정 20영>은 각 시인들의 소재목들이 모두 동일하며, 5명의 연작시 100수가 모두 오언절구의 형식으



<식영정 20영> 현판

로 되어 있다.¹⁶⁾

현재 식영정에는 <식영정 20영> 중 임억령의 시 20수와 고경명의 시 20수 그리고 김성원(金成遠)의 시 18수가 판각되어 걸려 있으며, 모두 각각의 문집 속에 시들이 실려 있다. 위의 사진은 고경명의 시를 판각한 현판이다.

<면양정 30영>과 <식영정 20영>은 책 속에만 담겨 있는 작품이 아니라, 선조들이 이 시를 썼던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면양정, 식영정에서 교유를 하였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풍경에 대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읊었다. 그들이 교유하고 노닐었던 누정은 지금도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며, 그곳에는 그들이 읊은 시가 현판으로 걸려 누정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들이 읊었던 풍경은 시간의 흐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 그들이 있었던 누정에서 그들이 보았던 시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살아있는 문학이 되며, 이를 문화영재 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선비들의 작품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瑞石閑雲	서석의 한가로운 구름
飄空亂絮彈	허공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구름
釋嶠脩眉斂	석교봉은 긴 눈썹을 휘감은 듯.
濃淡摠相宜	짙고 흐림이 모두 알맞으니
詩材多不厭	시거리 많아 실증나지 않구나.

위의 시는 고경명이 지은 <식영정 20영> 중 첫 번째 시이다. 식영정

16) 황민선, 「누정연작제영 <息影亭 20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11쪽.

로 되어 있다.¹⁶⁾

현재 식영정에는 <식영정 20영> 중 임억령의 시 20수와 고경명의 시 20수 그리고 김성원(金成遠)의 시 18수가 판각되어 걸려 있으며, 모두 각각의 문집 속에 시들이 실려 있다. 위의 사진은 고경명의 시를 판각한 현판이다.

<면양정 30영>과 <식영정 20영>은 책 속에만 담겨 있는 작품이 아니라, 선조들이 이 시를 썼던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면양정, 식영정에서 교유를 하였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풍경에 대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읊었다. 그들이 교유하고 노닐었던 누정은 지금도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며, 그곳에는 그들이 읊은 시가 현판으로 걸려 누정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들이 읊었던 풍경은 시간의 흐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 그들이 있었던 누정에서 그들이 보았던 시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살아있는 문학이 되며, 이를 문화영재 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선비들의 작품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瑞石閑雲	서석의 한가로운 구름
飄空亂絮彈	허공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구름
釋嶠脩眉斂	석교봉은 긴 눈썹을 휘감은 듯.
濃淡摠相宜	짙고 흐림이 모두 알맞으니
詩材多不厭	시거리 많아 실증나지 않구나.

위의 시는 고경명이 지은 <식영정 20영> 중 첫 번째 시이다. 식영정

16) 황민선, 「누정연작제영 <息影亭 20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11쪽.

에서 무등산 서석대를 바라보며, 산에 훑날리는 구름을 묘사한 작품이다. 식영정은 현존하는 정자로 지금도 식영정에 올라 무등산을 바라 보면, 한가로운 구름을 볼 수가 있다. 학생들과 함께 직접 식영정을 찾아 <식영정 20영>의 풍경을 찾아보며, 시 속 묘사와 실제 풍경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치도 살펴 본다면, 학생들에게 한시가 딱딱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좋은 풍경을 보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처럼, 선조들은 누정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를 읊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실제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방안이다. <면양정 30영>, <식영정 30영>의 창작과정, 내용 등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누정에서 누정연작제영 같은 시를 쓰게 하는 것이다. 성산사선과 같이 친분이 있는 친구들 4~5명이조를 이루고, 이 중 한 명이 누정의 풍경을 주제로 시 제목을 정하고 5수의 시를 지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 제목에 맞춰 시를 짓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시를 짓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리말로 된 현대시를 짓게 하되 절구와 같이 4행의 시로 짓는다는 제한을 둔다면 한시의 형식적 제한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5수로 분량을 적게 하고, 제한은 4행으로만 두되, 이후 학생들이 이 형식을 익히고 어렵지 않게 느낀다면 10수, 20수로 시의 분량을 늘리고, 한시의 압운과 같이 정해진 단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한시의 기본 정형성, 원운시와 차운시, 누정연작제영 등의 개념을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를 직접 쓰면서 시를 일상화했고, 누정에서 교유했던 선조들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시 쓰는 능력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누정이라는 공간까지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의 의의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영재를 교육한다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호남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친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역 친화적이라는 것은 호남만을 중시하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었던 일, 자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의 일일 때 훨씬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담양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에게는 남원에 있는 광한루보다 담양에 있는 식영정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곳이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자신이 영광에 살고 있는데, 영광 사람인 강항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면 더욱 관심이 가는 것도 당연하다. 누정현판을 통한 교육을 하더라도 광주지역 학생들에게는 광주의 누정에서, 나주지역 학생들에게는 나주의 누정에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을 낯선 것이 아닌, 자신 주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영남지역에서는 영남기록문화유산을,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영재 교육을 하면 지역 친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남기록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여 교육하며 역사적 지식도 함양시킬 수 있다. 호남의 문

집은 고려 시대 문인의 문집도 남아 있으며, 누정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고문서, 고서화 등도 다양한 시기의 것이 존재하여 그 당시의 역사적 모습을 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 쓰기를 하더라도 식영정, 면양정에서 조선 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교유하며 시를 썼던 것을 배우고, 같은 방식으로 시를 쓰는 체험을 한다면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남기록문화유산은 문집 3,000종, 지방지 2,000종, 문중문헌 1,000종, 고서화 50,000점, 누정현판/금석문 5,000점, 고문서 10,000점, 일기 200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다. 필자는 문집에 수록된 실기 두 편, 누정현판 중 면양정과 식영정의 누정현판을 대상으로 교육방안을 살펴 보았다. 이는 교육을 위한 한 예를 든 것으로, 교육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문집의 서발(序跋)을 통해 문집 제작 경위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 책의 서문과 발문을 쓰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문집 안의 서간문을 통해 교유관계를 살필 수도 있고, 문집에 수록된 서간문과 고문서로 남아 있는 서간문을 비교 교육할 수도 있다. 고서화를 통해 서화의 미적 가치와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으며, 금석문을 직접 탁본해 보며 직접 체험을 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호남기록문화유산은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자의 방침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제작 등 문화콘텐츠화 교육이 가능하다. 호남기록문화유산은 다양한 이야기거

리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흥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문화콘텐츠화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것이 있다. 이는 성인인 전문가들이 문화콘텐츠화 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화콘텐츠화 된 것으로 보여주고 직접 스토리텔링을 하고 애니메이션의 원고를 만들게 한다면 학생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을 21세기에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즐거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문화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된 현 상황에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황을 살폈다. 이를 통해 문집 3,000종, 지방지 2,000종, 문중문헌 1,000종, 고서화 50,000점, 누정현판/금석문 5,000점, 고문서 10,000점, 일기 200점 등 풍부한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영재교육 방안의 예로, 호남문집과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교육을 살펴보았다. 호남문집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에서는 문집에 수록된 작품 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해외를 체험하고 이를 기록한 실기인 최부의 『표해록』과 강항의 『간양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편의 실기를 통해 역사 속 사람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르치고, 최부와 강항이 경험했던 곳을 여행하여 문학적 체험과 실제 체

힘을 함께 겪으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글로 쓰게 하는 교육 방안을 예로 들었다.

호남누정현판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에서는 <면앙정 30영>과 <식영정 20영>이라는 작품이 지금도 현판으로 걸려 있는 면앙정과 식영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면앙정, 식영정에서 교유를 하였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풍경에 대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읊었다. 학생들이 이러한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배우고, 직접 누정을 찾아 <식영정 20영>의 작자들처럼 친분 있는 친구들이 조를 이룬 후 이 중 한 명이 누정의 풍경을 주제로 시 제목을 정하고 시를 지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 제목에 맞춰 시를 짓는 교육 방안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호남기록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영재 교육의 의미를 살폈다. 이를 통해 호남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친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점,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여 교육하며 역사적 지식도 함양시킬 수 있는 점,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점, 애니메이션 제작 등 문화콘텐츠화 교육이 가능한 점 등 네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姜沆, 『睡隱集』, 《한국문집총간》 73, 민족문화추진회.
- 崔溥, 『錦南集』, 《한국문집총간》 16, 민족문화추진회.
- 강항, 『간양록』, 《국역해행총제》 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 최부 저/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
- 호남한문고전연구실(<http://www.honamculture.or.kr/>)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문집 기초목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지방지 기초목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지역 간행본 한문문집 간명해제』 上·下,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김대현,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 (재)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제8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12.
- 김대현·김미선,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 김미선, 「崔溥 ‘漂海錄’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 송병삼·염승한, 「문화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실제」,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송인섭 외, 「영재를 위한 인문사회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영재와 영재

- 교육』 8, 한국영재교육학회, 2009.
- 이선옥, 『호남의 감성으로 그리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 이옥희, 「남도 문화예술의 미적 특성과 문화 가치」,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임준성, 「『俛仰亭三十詠』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 임준성, 「〈성산계류탁열도〉 재연 분석과 문화콘텐츠로써 가능성」, 『남도민속연구』 25, 남도민속학회, 2012.
- 전동진·김민지, 「문화영재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태진미, 「영재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황민선, 「光州 風詠亭 次韻詩 고찰」, 『고시가연구』 28,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 황민선, 「누정연작제영 <息影亭 20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ducation of Cultural Talents Using the Honam Archival Cultural Heritage

Kim, Mi-sun

This study sought to consider the recognized importance of educating cultural talents, and to propose to educate cultural talents using the Honam Archival Cultural Heritage(HACH).

First, Chapter 2 used the data posted on the HACH website and examined the HACH status. Thus, 3,000 cases of collections of literature, 2,000 cases of local records, and 5,000 cases of pavilion signboards / epigraph were found, offering ample HACH.

Next, Chapter 3 used HACH, and examined Honam collections of literature and Honam pavilion signboards as a means of educating talents. Of Honam collections of literature, Choe Bu-ui's Pyohaerok, which describes his rough overseas travel and life, and Gang Hang's Ganyangnok Record, were examined as a means of educating cultural talents. Based on these two books, measures for educating cultural talents were proposed by which target students are required to be vividly taught about historical people, to travel the places that the

authors had travelled to have literary and social experience, and to write their memories on their travel.

As for education of cultural talents using Honam pavilion signboards, signboards of Myeonangjeong and Sikyangjeong pavilions were used. Korean forefathers socialized in pavilions, and composed and recited poems about sceneries of the pavilions as shown in <Myeonangjeon 30 yeong> and <Sikyeongjeong 20 yeong>. A measure was proposed by which students are required to learn such pavilion culture, and to write poems like <Sikyeongjeong 20 yeong> in pavilion.

Lastly, Chapter 4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of cultural talents, using HACH. Thus, it was confirmed that region-friendly education can be offered to Honam students, that education linking tradition and present is possible thus fostering historical knowledge for the students, that a wide range of materials can be used to offer tailored education, and that education based on cultural contents such as animations can be possible.

Key Words : Honam Archiv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talents, Honam collections of literature, Honam pavilion signboards, Pyohaerok, Ganyangnok, Myeonangjeong, Sikyangjeong

이 논문은 2014년 9월 15일 투고되어 2014년 10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월 17일 게재 확정되었음.